■ 지방선거 핫코너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광주 희망과 대안'은 23일 지방선거 후보 가운데 18명을 뽑아 '좋은 후보'라고 발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희망과 대안 '좋은 후보' 18명 발표 논란

광주 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광주 희망과 대안'이 2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좋은 후보' 18명의 명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당수 '좋은 후보'가 친노(親盧) 인사들인데다, 포함되지 않은 일부 예비후보들은 선정기준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희망과 대안은 이날 오후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장 후보 3명, 구청장 후보 3명, 시의원 후보 12명 등 18명을 '좋은 후보'로 선정, 발표했다.

희망과 대안은 서류를 제출한 후보를 대상으로, 시민단체 회원 50명과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기본 심사와 전문가(시민단체 6명, 교수 4명, 여성 2명, 변호사 1명) 집단의 최종 심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장 정동채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희망과 대안의 좋은 후보 선정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선정 방법과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며 "지방선거에 나설 좋은 후보를 선정하려면 면접, 실사, 토론 등을 통해 공개적이고 철저하게 검증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 측 관계자도 "면접 조사도 없이 어떻게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일부에선 선정된 인사 상당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로 채워져 '코드 후보 선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희망과 대안 관계자는 "서류를 제출한 후보에 한해 도덕성과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후보별 공통 항목과 별도 기준 등으로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병완 "광주서 '제2의 노풍' 일어날 것"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후보인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3일 광주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광주시장 선거는 2012년 민주진영 정권 창출의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광주시민이 민주당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희망인 국민참여당 후보를 선택하는 '제2의 노풍'을 일으켜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 창당과 관련, 이 후보는 "한나라당은 집권연장을 위해 민주당을 호남에 고립시키는 전략을 쓸 것"이라며 "국민참여당은 영남의 지지는 물론 20~30대 등 세대를 아우르는 전국정당으로 성장, 오는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민주진영의 정권 창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올해 83세인 노모께서 '광주시장이 되면 월급을 경제적 고충이 큰 택시 기사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라'고 당부하셨으며 이를 꼭 지키겠다"고 강조한 뒤 "광주시민이 키워주는 국민참여당은 결국 광주의 자긍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이 "광주시의원 선거 출마"

윤병이 광주시 야구협회 회장이 23일 "20여년의 기업 활동과 10여년의 시민·사회·체육 단체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시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사용하겠다"며 광주시 남구 제2선거구 광주시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회장은 2015년 광주 하계 U-대회 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사)한국바둑교육협회 고문, 광주상고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민주당 중앙당 체육특위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김재석 광주시의원 선거사무소 개소

김재석 광주시의원 예비후보가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광주시의원 남구 제3선거구(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에 출마를 선언한 김재석 전 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5시 남구 진월동 현대아파트 입구 빌딩 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각계 인사와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개소식을 갖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선스님, 강운태 국회의원, 이윤정 민주당 남구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동채 "광주시장후보, 예산 확보 뒷전"

정동채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다음달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광주 핵심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시급한데도 국회 예결위원인 강운태 의원과 이용섭 의원은 광주시장 경선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벌써부터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광주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인색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역의 예결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찬용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해야"

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아이들에게 전면적으로 의무급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고, 우수농산물(친환경)식재료 구입비와 일반식재료 구입비의 차액 24억 원만을 지원하는데 그쳤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을 의무급식 개념으로 바꾸는 법적 정비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남평오 "중앙당 공천방식, 개혁의지 후퇴"

남평오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무산시킨 중앙당의 공천방식 결정은 문제가 있고 개혁의지를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6·2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도입,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공천키로 해놓고 그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정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이 모두 시민공천배심원제 수용 뜻을 밝혔음에도 국민참여경선으로 회귀한 것은 금권경선, 조직동원경선 등 구태 정당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선 "농산어촌 교육복지예산 확대"

윤기선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교육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 무료급식·종일 돌봄학교 등을 확대 운영해 학생들이 개인·가정·지역·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복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박지경·최권일·박진표기자 tuim@kwangju.co.kr

'봉은사 외압' 진실공방

김영국 "명진스님 말은 모두 사실"

안상수 "어떠한 외압 가한 일 없다"

여야는 23일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봉은사 주진 명진스님의 주장과 관련, 격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대응하지 않겠다"며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이날 첫 공식 논평을 내놓는 등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이 이날 안 원내대표의 정계 은퇴를 요구하며 공세수위를 한층 높인 데다, '봉은사 외압설'을 명진스님에게 전한 김영국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명진스님의 말은 사실"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문제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여야간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안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라며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매카시즘을 선동하는 발언,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발언을 한 정치인을 즉각 출당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나아가 "안 원내대표는 헌법을 유린하고 종교를 발아래 두려고 했다는 의혹에 답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정계은퇴로 국민 앞에 속죄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성한 종교단체인 조계종 측에 외압을 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실제 어떠한 외압을 가한 일이 없다"며 외압설을 거듭 일축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일,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밝힌 일을 사실로 가정해 여당 원내대표의 정계은퇴까지 요구한 민주당은 선거에 핏발이 서서 냉정과 평상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유 페이먼트 사업' 법인 출범

카드 한장으로 교통·유통 결제

광주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역점 추진중인 '유 페이먼트 기반구축사업'의 전담법인 (주)한페이시스가 24일 출범한다.

광주시는 23일 "(주)한페이시스가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8층 사업법인의 사무실에서 컨소시엄 참여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유 페이먼트 기반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초 광주시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롯데정보통신 컨소시엄은 최근 사업법인 설립등기와 참여 주주간 협약체결, 사업자 등록 등의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다.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교통·공공·민간 등 분야별로 사업시행자와 세부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기반구축과 수집·정산센터 설치 등에 나서 오는 11월까지 버스·지하철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 페이먼트 기반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시는 충전식 선불카드 1장으로 교통·유통 등 제반분야에서 전국 호환이 가능한 표준카드가 개발되고 전자지불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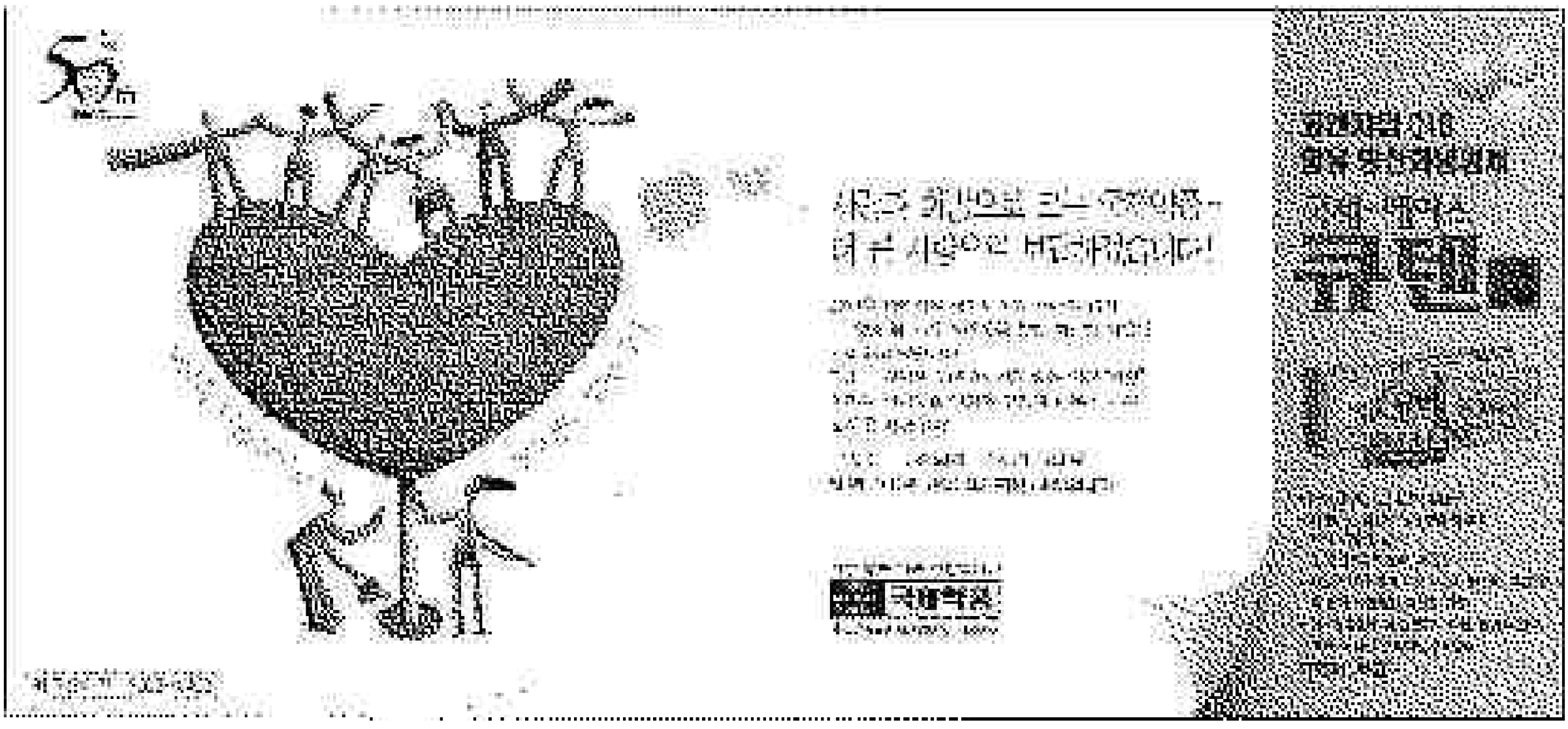
300억원 규모로 추진하게 될 유 페이먼크 기반구축사업은 롯데정보통신사를 주관사로, 마이비와 광주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기자본금 100억원 출자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김치연구소' 광주 조기 이전 합의

광주시와 세계김치연구소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연구소로 지난 10일 임시 개소한 세계김치연구소의 조기 광주 이전에 합의했다.

광주시는 또, 세계김치연구소로 하여금 광주김치연구소의 건립공사를 대행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24일 박광태 시장과 박완수 세계김치연구소장이 광주시청에서 연구소 조기이전과 광주김치연구소 건립공사 대행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세계김치연구소 유치에 성공한 광주시는 남구 임암동 일원에 김치 복합 테마파크인 광주김치타운을 조성하고, 세계김치연구소를 건립해 국내 유일의 김치산업 집적화 단지인 김치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